붙임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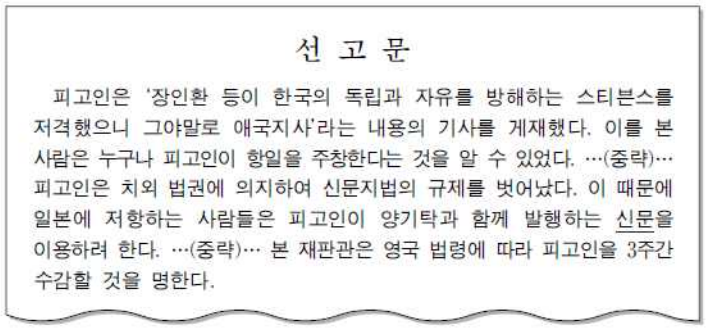
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

# 한국사 14번 복수 정답,
# 물리II 9번 정답 없음 결정 자료

## 가 한국사 14번 복수 정답 결정 자료

### ☐ 이의 신청된 문항

14. 밑줄 친 '신문'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

선 고 문

피고인은 '장인환 등이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방해하는 스티븐스를 저격했으니 그야말로 애국지사'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. 이를 본 사람은 누구나 피고인이 항일을 주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…(중략)… 피고인은 치외 법권에 의지하여 신문지법의 규제를 벗어났다. 이 때문에 일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양기탁과 함께 발행하는 신문을 이용하려 한다. …(중략)… 본 재판관은 영국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3주간 수감할 것을 명한다.

①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.
② 최초로 발행된 순 한글 신문이었다.
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다.
④ 조선 총독부의 '문화 통치' 방침에 따라 창간되었다.
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.

### ☐ 이의 신청 내용 요약

○ '시일야방성대곡'의 『대한매일신보』 게재 여부

- 답지 ⑤에서 언급한 '시일야방성대곡'은 『대한매일신보』에 영어로 전문이 번역 게재되었으므로 답지 ⑤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함.

### ☐ 이의 신청 심사 과정

○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중대 사안으로 인식(설명자료 배포, 2016.11.18.)하고, 전문 학회(한국사연구회, 역사교육연구회)에 자문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회신을 받았음.

- A학회: 『대한매일신보』에 '시일야방성대곡'의 내용이 번역되어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고, 답지 ⑤에 '최초로'라는 진술이 없으므로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.

- B학회: 『대한매일신보』에 『황성신문』의 '시일야방성대곡'이 영어로 번역되어 게재 된 것은 사실이므로 답지 ⑤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이 "'시일야방성대곡'은 『대한매일신보』 의 영문판(1905년 11월 27일자)에 영어로 번역되어 게재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답지 ⑤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."는 결론을 내렸음.

○ 이의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결론을 심의하여 답지 ①과 함께 답지 ⑤도 정답으로 최종 확정하였음.

## ☐ 복수 정답 인정 사유

○ 본 문항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애국 계몽 운동기에 발행된 『대한매일신보』의 특징과 활동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임.

○ 답지 ⑤의 '시일야방성대곡'이 『대한매일신보』에도 게재되었기 때문에 답지 ⑤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의 신청이 있었음.

○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전공 학회 및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 받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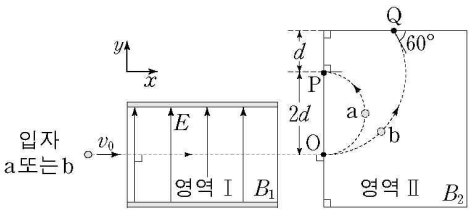
- 『대한매일신보』 영문판에 '시일야방성대곡'의 전문이 영어로 번역되어 게재되었기 때문에, 『대한매일신보』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'시일야방성대곡'을 게재하였다고 볼 수 있음.

○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면, 『대한매일신보』 영문판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'시일야방성대곡'이 게재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됨. 따라서 답지 ①과 함께 답지 '⑤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.'를 정답으로 인정함.

## 나 물리II 9번 정답 없음 결정 자료

### ☐ 이의 신청된 문항

9.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$+q$로 같고 질량이 서로 다른 입자 a, b를 영역 Ⅰ에 속력 $v_0$으로 각각 입사시키면 점 O까지 등속도 운동을 한 후, 영역 Ⅱ에 수직으로 입사하여 $xy$평면에서 원궤도를 따라 운동한 후 각각 점 P, Q에 도달한다. Ⅰ에는 세기가 $E$이고 $+y$방향인 전기장과 세기가 $B_1$인 자기장이 동시에 형성되어 있고, Ⅱ에는 세기가 $B_2$인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.




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〈보기〉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〈보 기〉

ㄱ. $E = v_0 B_1$이다.
ㄴ. 자기장의 방향은 Ⅰ과 Ⅱ에서 서로 같다.
ㄷ.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.

① ㄱ ② ㄴ ③ ㄱ, ㄷ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### ☐ 이의 신청 내용 요약

○ <보기>의 선택지 ㄱ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

- 그림의 영역 Ⅰ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출제의도와 달리 임의로 설정할 경우 <보기> ㄱ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 선택지 중 <보기> ㄷ만 옳으므로 답지에 정답이 없음.

### ☐ 이의 신청 심사 과정

○ **(이의 신청 접수)** 본 문항의 경우 이의 신청이 단 1건만 접수되는 등 이의 신청 기간 중 논란이 없었음.

○ **(이의 신청 모니터링)** 이의 신청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'중대 사안'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『이의신청 모니터링단』의 물리 위원 3명 중 1명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평가원 내부 논의를 통해 <중대 사안>으로 분류하고 관련 학회에 자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음.

○ **(학회 자문)**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한국물리학회에 자문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회신을 받았음.

<한국물리학회 자문 결과>

- 문항에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보기 ㄱ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 답안 중 정답이 없음.

○ **(이의심사실무위원회)**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는 학회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"문항의 조건 부족으로 <보기> ㄱ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음. 따라서 답안 중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."는 결론을 내렸음.

○ **(이의심사위원회)** 이의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결론을 심의하여 정답 없음을 최종 확정하였음.

## ☐ 정답 없음 인정 사유

○ 본 문항은 로런츠 힘을 이용한 속도선택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임.

○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<보기> ㄱ에서 '$E = v_0 B_1$이다.'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의 신청이 있었음.

○ 학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 결과, <보기> ㄱ은 자기장의 방향을 특정할 수 없어 조건에 따라 '참'과 '거짓'이 달라지므로 <보기> ㄱ을 '거짓'으로 판단할 수 있음.

○ <보기> ㄱ을 '거짓'으로 판단할 때, 5개의 답안 중 '참'인 ㄷ만으로 구성된 답안이 없으므로 정답 없음으로 인정함.